



육용오리 농장 편

가금농장 방역 관리요령

지난 2020년·2021년 겨울철 전국의 야생조류에서 유례없는 수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고, 산란계와 종오리, 육용오리, 메추리 농장 등 다양한 가금 축종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에 농장 자체적으로 차단 방역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금농장 방역 관리 요령을 소개한다.

가금농장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방역·소독시설 기준 및 방역 준수사항을 포함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방역 미흡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권고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방역 기록

농장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 및 출입 등 기록은 출입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출입자 또는 차량운전자 등이 법정 서식에 따라 정해진 정보(* 출입 일시, 소독 여부, 차량 번호, 차량 GPS 장착 여부 등)를 빠짐없이 기록하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사육 가금을 매일 면밀하게 살펴보고, 축사별 폐사 현황을 월 1회(매월 5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폐사율 증가, 녹변·신경증상 등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해야 한다.

입식 사전 신고

농장에 가금을 입식하기 전 청결한 농장 관리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농장 방역시설과 소독시설을 자체 점검하여 미흡사항 보완 후 입식해야 하며, 입식 7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입식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방역교육 이수 및 기타 방역준수사항

방역요령의 숙지 및 변경된 규정의 이해 등을 위해 농장 관리자(종사자)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방역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가축 구매자에게 판매 가축의 종류, 출생일, 성별, 예방접종 내역 및 가축전염병 검사결과 등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농장 외부

농장 외부의 물품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부 물품을 소독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 반입 창고를 설치하고 농장 반입 전 소독해야 한다. 외부 물품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 방역실로 창고를 대체 가능하다.

출입차단 시설

차량·장비의 SI 바이러스 등 오염원을 제거하는 시설로, 차량 소독을 위한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과 시설·장비 등 소독을 위한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출입 시 각각 소독해야 한다. 고정식 설치가 어려운 1,000m² 미만 사육시설은 고압분무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소독 시설은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정상 작동해야 하며, 소독약 보관/희석용기를 갖추고, 유효기간과 희석배수를 준수해야 한다. 차량 바퀴와 휴관이 등을 꼼꼼히 소독하기 위해 고정식 소독시설로 1차 소독한 후,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2차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외부물품 반입시설

출입통제 시설

사람·차량의 무단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로, 농장의 모든 출입구에 출입 통제 안내판과 차단바·문 등을 설치해야 하고, 모든 출입구는 평상 시 항상 닫아놓아야 한다. 사람·차량이 차단시설을 우회하여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무단 출입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회하여 출입할 수 없는 구조로 출입 통제시설을 설계할 것을 권고한다.

울타리·담장

SI 유입 차단을 위해 사람·차량·야생동물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로, 농장 둘레를 따라 빈틈없이 설치해야 하고, 뚫려있거나 훼손된 곳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경계림, 개천 등 자연경계도 울타리가 될 수 있으나, 사람과 차량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축사오염 최소화를 위해 농장 내부 울타리를 설치해 각 구역간 사람이나 차량의 출입도 통제할 것을 권고한다.

야생조수류 차단망

야생동물을 통한 SI 유입 차단을 위해, 환풍시설 및 배수구 등에 차단망을 꼼꼼히 설치해야 한다.

폐사체 및 분뇨 처리

폐사체와 분뇨는 야생동물 유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폐사체는 자체 랜더링 또는 냉장·냉동시설 등을 사용해 보관·처리해야 하며, 분뇨벨트와 축사와 연결된 공간은 차단망으로 차단해야 한다. 또한 폐사체 및 분뇨 처리를 위해 종사자가 소독 조치 없이 쪽문으로 출입할 수 있으므로, 쪽문은 폐쇄하거나 전실을 구비할 것을 권고한다.

주차장 및 숙소 관리

종사자 및 종사자의 차량을 통한 SI 유입차단을 위해, 종사자의 차량이 농장 내 진입하지 않고 농장 외부에 주차할 것과, 농장 내 종사자 숙소가 있는 경우, 숙소에서 축사로 종사자가 이동할 경우 신발·의복·손 등을 소독할 것을 권고한다.

구서 작업

쥐는 야생동물 폐사체 등과 접촉하면서 SI 바이러스를 유입시킬 수 있으므로, 구서제 살포 또는 전문업체 등을 통해 구서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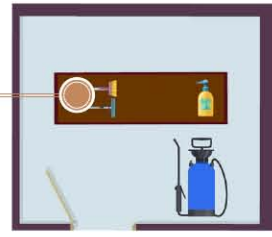
※ 구서제 살포장소 : 축사 내외부, 사료창고, 왕겨창고, 퇴비장, 집란·계분벨트 주변 등

농장 마당 및 농장 내 시설·장비 등 청결 관리

야생동물 유인 요인을 최소화하고, 농장 내 오염원 제거를 위해, 사료빈 주변과 사료창고, 축사 주변은 떨어진 사료가 없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축사 내외부와 왕겨살포기 등 장비·기자재 등은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농장 내부

방역실



사람을 통한 AI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로, 농장 출입구에 외부와 차단된 형태로 설치하고, 1회용 작업복·신발·장갑 등 방역용품과 신발·손 소독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방역실을 거치지 않고는 농장 내 출입이 불가하도록 외부 울타리 경계면 등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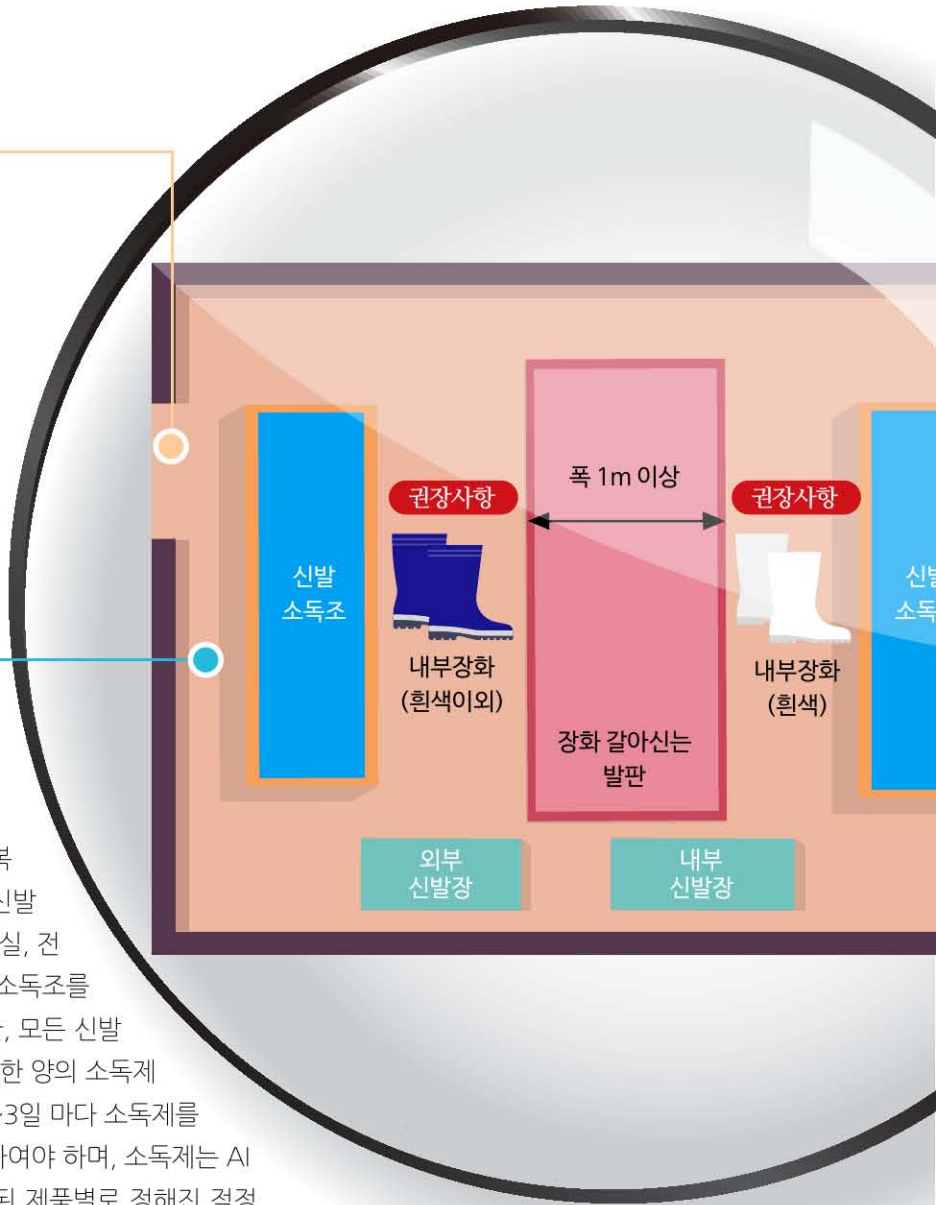
전실

축사 내 AI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로, 축사 입구에 외부와 차단된 형태로 설치하고, 축사 진입 전 축사 전용 신발로 갈아신고 신발, 손을 소독(또는 1회용 장갑 착용)해야 한다.

* 권장사항 : 발판의 권장 높이는 60cm이며 최소 7cm가 되어야 한다. 재질은 청소, 소독이 가능한 재질이어야 한다.

신발소독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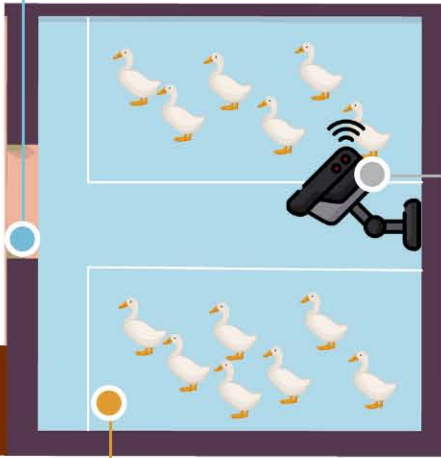
고병원성 시가 발생한 가금 농장에서 반복 확인되는 방역 미흡사항인 만큼 종사자 신발을 통한 시 유입 차단을 위해 농장 내 방역실, 전실, 사료창고, 관리사무실 등 시설에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모든 신발소독조에는 신발 바닥이 잠길 정도의 충분한 양의 소독제가 있어야 하고, 소독 효과 유지를 위해 2~3일 마다 소독제를 교체하고, 유기물이 있는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소독제는 시에 유효한 소독제를 사용해야 하며, 허가된 제품별로 정해진 적정 희석배수와 유효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축사출입구

축사와 축사 출입구는 야생동물 유입 차단과 종사자 등 소독을 위해, 구멍 또는 훼손으로 외부에 노출된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축사 쪽문은 방역상 취약한 구조물이므로 폐쇄하거나, 축사 바깥에서 쪽문으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하고, 부득이 쪽문을 사용해야 할 경우, 축사 출입구와 동일하게 전실(신발소독조, 손 소독제 또는 1회용 장갑, 축사 전용 신발 등 포함)을 구비해야 한다.



전실

CCTV 관리

CCTV는 사육 가금에 대한 예찰 목적 외에도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의 소독 여부, 축사에 출입하는 종사자의 소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농장의 각 출입과 각 축사의 내부 마다 설치하고, 항상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법적으로 CCTV 영상기록은 30일 이상 저장·보관해야 한다.

분동 및 입식·출하관리

사육 중인 새끼오리 등을 다른 축사로 분동할 경우, 농장 단위로 입식·출하 시작 후 7일 내 입식과 출하를 각각 완료해야 한다. 이때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시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농장 내 시 등 가축전염병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입식과 출하를 농장 단위로 일제히 실시하고 입식·출하 전 축사 내외부에 대한 청소·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